

“14년만에 늦깍이 간부 승진 했는데...” 비통

故김철균 사무관 갑작스런 죽음 접한 광주시청 직원들

윤시장 “시민위해 헌신한 고인 모습 고이 간직” 市, 청사 1층에 분향소 마련...서기관 추서

중국 역사탐방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광주시 김철균(55) 사무관의 갑작스런 비보에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당혹감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시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중견리더 과정을 밟던 김 사무관이 지난 1일 중국에서 버스 추락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날 저녁 사고 상황반을 꾸리고, 시청사 1층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는 비보가 전해진 직후 김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추서했다.

김 사무관은 올해 지난 1월 중견 간부인 5급 공무원에 승진한 지 수개월 만에 변을 당했다. 더욱이 김 사무관은 지난달 장모상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동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공업사무관(기계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적은 탓에 고인은 6급에서 무려 14년만에 간부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관은 연수가 끝나면 구청에서 과장 보직을 받아 자신의 행정 철학대로 구청에 기여하는 것이 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고 김철균 서기관 영면을 기원하며’라는 제목의 애도사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신 고인께서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편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생 시민을 위해 헌신해왔던 고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잊지않고 항상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며, 남이 다 이루지 못한 남은 저희가 반드시 이루어가겠습니다’라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광주시 도로과 김동운 계장은 “공업직렬(기계직)이면서도 다양한 업무에 능해 회계과에서는 전기직렬의 업무까지 맡을 정도의 유능한 공무원이었다”면서 “조직

에서도 위·아래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말 소중한 직원이었다”고 회상했다.

광주시 모 주무관은 “모든 면에서 표준이 되는 선배였다”면서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는 일처리와 소탈하면서도 성실한 태도 때문에 많은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됐던 분인데, 승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광주시 대변인실 한 공무원은 “그분과 15년 전 대중교통과에서 근무하며 모임을 함께해 왔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언제나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고 동료와 직원들을 가족같이 아꼈던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연수가 끝나면 이달 중 점심을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슬픔을 함께 했다.

건설교통국 모 사무관도 “언제나 다정 다감한 성격에 일도 잘하셔서 직원들 사이에 존경과 인기를 받았다”며 “갑작스럽게 떠나 모두가 미안하고 아파하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사무관은 자신의 커가오록 초기 화면 제목을 ‘행복한 가족’이라고 달 정도로 부인(51)과 아들(26)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마음을 저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본격 구조활동 지난 1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과 단둥(丹東) 경계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 아래로 추락한 버스에서 중국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버스에는 한국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2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중 10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해질 19:51
물결 20:37 밀집 06:28

U대회 개막식 ‘맑아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새벽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온뒤 맑음	19/30	보성	흐린뒤맑음	19/28
목포	비온뒤 맑음	19/25	순천	흐린뒤맑음	20/29
여수	흐린뒤맑음	21/26	영광	비온뒤 맑음	18/28
나주	비온뒤 맑음	18/30	진도	비온뒤 맑음	18/26
완도	흐린뒤맑음	19/27	전주	맑음	19/28
구례	흐린뒤맑음	19/30	군산	비온뒤 맑음	18/26
강진	흐린뒤맑음	19/27	남원	맑음	19/28
해남	비온뒤 맑음	19/27	홍산도	흐린뒤맑음	17/23
장성	비온뒤 맑음	17/29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부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제주	면바다(서)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40
-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03	08:17
	15:03	20:19
여수	09:45	03:47
	22:24	15:42

◇주간 날씨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	☀	☀	☁	☁	☀	☀
18/28	19/30	20/28	21/25	22/27	22/27	23/27



분향·헌화하는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린성 지안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 2일 광주시를 방문해 청사 1층에 마련된 김철균 사무관 분향소를 찾아 분향·헌화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남편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오열·실신

중국 도착 故김철균사무관 부인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교육생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김철균 사무관 부인은 2일 지안 외곽에 마련된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오열했다.

장례식장은 지안 시내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칠성산 중턱에 있어 압록강과 건너편 북한 지역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해 있다.

곶은비가 내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도착한 부인은 “우리 남편 없으면 어떻게 사나”며 울부짖었고 김 사무관 앞에서 30여 분간 오열하다 실신했다.

제주 출신 조영필씨 가족도 오열했다.

조씨 가족은 “두 분이 평소 사는 곳과 고향은 달랐지만 공무원 교육 등으로 자주 만나 10년간 친분을 다져온 사이”라며 “관 배치가 나란히 돼 있어 가는 길이 외롭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며 흐느꼈다.

중국 현지 공안과 장례식장 측은 20명의 인력을 배치해 한국 언론의 취재를 막아 마찰이 빚어졌다.

선양 총영사관은 지안 시내 한 호텔에 사고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사망자, 부상자 가족들과 함께 장례절차 및 향후 귀국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도 이날 오후 늦게 장춘(長春)병원에 입원한 부상자를 위로한 뒤 지안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부분 30여년 공직생활 주위 안타까움 더해

희생자들 사연 들어보니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진 8개 시·도 지방직 5급 공무원 9명은 대부분 30년 안팎의 오랜 공직생활 끝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이모(55) 사무관은 1980년에 공직에 입문해 31년 만인 2012년 6월 사무관이 됐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해 방송통신고와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그는 2013년 12월부터 행정직 공무원이 해내기 어려운 도시계획과장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7년차 과장인 김모(54) 사무관은 지난 1월 후배에게 승진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장기교육을 지원했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공직생활 시작했고 36세 때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학구열이 높았다.

공직생활 33년 만인 2013년 4월 5급으로 승진한 경기도 고양시 한모(54) 사무관은 아내와 동생이 모두 공무원이다.

보름 전 장녀를 결혼시키며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아내는 사고 소식에 실신했고, 다른 가족도 슬픔에 잠겨 있다. 인천시 서구 한모(55) 사무관도 “일을 철저히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운 직원에게 농담을 건네고 야근하는 직원을 매일 격려하는 등 인품이 훌륭한 상사”였다고 안타까워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컸다. /연합뉴스

오펜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